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창작산실 지속연주지원사업

# 디딤돌 프로젝트

## I. 교류와 교감

작곡가 장석진

작곡가 배동진


작곡가 조선희

작곡가 이복남

연주 / 아카데미 열정과 나눔

음악감독 겸 지휘 / 진윤일 협연 / 바이올린 이보연

2023. 7. 15(토) 오후 7:30  광림아트센터 장천홀

주최 아카데미 열정과 나눔 주관  에인예술기획 [www.gelarts.com](http://www.gelarts.com)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창작산실 지속연주지원 협찬 Songwoo OSIC (주)오성정보통신  아나파의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창작산실 지속연주지원사업 디딤돌 프로젝트 - 1. 교류와 교감

디딤돌 프로젝트 - 1, 교류와 교감은 각 세대별 작곡가들의 작품을 통해 청중과의 교감을 형성하는 프로젝트로 구상하였다. 청중과 현대곡, 작곡가와 연주자, 신진과 기성세대 작곡가가 이어주는 디딤돌의 역할로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서로간의 간격을 이어줌으로써 한국 창작곡의 지속가능성을 보여주는 연주회를 만들어 가고자 한다.

연주자, 청중, 해설을 맡은 작곡가가 한데 어우러져 교감하고 청중과의 친화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음악회 형태를 선보일 예정이다.



### 음악감독 겸 지휘 진윤일

-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졸업 (Viola 전공)
- \* 모스크바 국립음악원 연구과정(Viola, Orchestral Conducting 전공), 아스페란투라과정 및 한국인 최초 Viola 연주 박사학위 취득
- \* KBS교향악단, 서울챔버오케스트라 단원 역임
- \* 이화여대, 숙명여대, 부산대, 강남대, 백석대 강사 및 겸임교수 역임
- \* 목포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 역임
- \* 러시아, 카자흐스탄, 프랑스, 불가리아, 멕시코 등 국내외 다수의 콩쿠르 및 2015, 2017 영 차이코프스키 국제콩쿠르 심사위원 위촉
- \* 현재 : 아카데미 열정과 나눔 음악감독 및 상임지휘자, 몽골 국립교향악단 초청 객원 지휘자



### 협연 / 바이올린 이보연

- \* 예원학교, 서울예술고등학교 졸업
- \* 미국 줄리어드 음악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
- \* 동아음악콩쿠르 대상, 뉴욕 아티스트 인터내셔널 우승
- \* 한예종, 연세대, 숙명여대 등 강사 역임
- \* 현재 : 이화여대, 예원·서울예고, 경기예고 출강
- \* 돔 앙상블 리더, 아티스트 소사이어티 더 노마즈 대표
- \* 화음챔버오케스트라 수석, 아카데미 열정과 나눔 악장, 모테트챔버오케스트라 악장
- \* 파블로 앤 파블로 피아노 트리오 멤버, 예술대안학교 예주랑 바이올린 주임



### Concert Guide 유선옥

-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음악학 박사 졸업
- \* <라모가 읽은 이성적 사랑과 감성적 사랑: 음악비국 《이폴리트와 아리시》의 아리시와 페드르를 중심으로>, <초기 계몽주의 시대의 이성적 사랑: 라모의 음악비국 《이폴리트와 아리시》의 프롤로그에 나오는 디안과 라무르를 중심으로> 등 연구
- \* 음악미학연구회의 『한국창작음악 비평과 해석 사이』, 『오페라 속의 미학 II』 저자
- \* 서울대학교 서양음악연구소 선임연구원 역임
- \* 현재 : 성신여대, 부산대, 경북대 출강

### APS 단원명단

악장	이보연	Va. 진 덕 박수연	구정희 남정은	Cl. 김희준 김동규	Per. 기현정 윤민구
1st Vn.	유은영 이영재 황난아	Vc. 배기정 최한나 박장근 최다미	Bn. 박선미 문정수	국악 타악기 최소리 곽아영	
	장경환 윤예영	Cb. 서범수 임희진	Hn. 김서현 김서린	편곡 / 키보드 김지은	
2nd Vn.	이재상 유연주 박성봉	Fl. 정은미 황선영	Tp. 박용원 박준혜	기획 이한울	
	박수연 장수현	Ob. 신지혜 임지연	Tb. 김성열 한현수	악보 장재철	

**장석진**

The Vertical Cloud

[b.1975]

**조선희**

홍수(flood) for Violin and Chamber Orchestra

[b.1961]

\* Vn. 이보연

**배동진**

“May I introduce Fauré?” for Orchestra

[b.1977]

**이복남**

관현악을 위한 “행궁(行宮)길, 그 향기에 취하다.”

[b.1965]

(한국초연)

— 본 작품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창작산실 지속연주지원으로 선정, 지원을 통해 제작된 작품입니다. —  
[www.arko.or.kr](http://www.arko.or.kr)    [www.instagram.com/arkoselection/](https://www.instagram.com/arkoselection/)    [www.facebook.com/arkocreate](https://www.facebook.com/arkocreate)

**<Gibu & Give>**

\* APS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전문예술단체입니다. 저희 단체에 기부 하시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 계좌번호 | 400401-01-232607 (국민은행 / 아카데미 열정과나눔)

\* 연 락 처 | 070-8800-3453



## 장석진

- \* 제40회 대한민국작곡상 수상, KBS교향악단 신진 작곡가로 선정
- \* 아창제 제10회 국악관 현악부문, 제12회 양악오케스트라 부문에 선정 및 작품발표
- \* 서양음악과 국악을 넘나들며 60여곡의 관현악과 실내악 작품 발표
- \* 무용음악, 오페라, 게임음악, 방송음악 그리고 전자음악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
- \* 현재 : 장로회 신학대학,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중앙대학교 출강

## The Vertical Cloud

성경 속 아브라함과 야곱이 돌을 쌓아 올린 것과 같은 제사 행위는 진보된 현대 시대에서는 어찌 보면 무속신앙을 추구한다는 인상을 주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예를 들어, 중세 시대 이단들이 여러 악기를 사용하여 예배하였기에 악기를 ‘악마의 도구’로 치부하던 기독교의 변화를 되돌아보면, 셀 수 없는 교단으로 나누어진 현대 기독교의 모습에서, ‘영적인 모든 행위는 그 중심이 어떠한가에 따른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며 취향적인 부분’에 가깝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제목인 〈The Vertical Cloud〉는 이집트를 가까스로 탈출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구름 즉, 하나님의 표징이기도 하다. 한편으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기도의 행위 또는 믿음의 표징 등을 상징한다. 역사적으로 기독교에 다양한 외부 종교의 문화가 들어와 자리 잡힌 것을 생각해 보면, 오늘날 교회의 형식화된 기도의 형식 같은 것도 우리가 성경에서 읽는 것과는 그리 닮아있다고 말할 수는 없어 보인다.

기도란 영적인 행위이다.

신내림을 받는 무당의 굿과는 물론 접근의 차이가 있겠으나, 영적 행위를 하는 기도자의 내면으로 보자면, 닮은 구석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The Vertical Cloud〉는 이러한 기도자의 내면, 또는 영적인 소통에 대한 간절함을 담아본 작품이다.

나는 여기에서 가야금과 장구, 정주, 목탁, 징 등의 한국 악기들을 사용했는데, 아무래도 종교적 입장에서 음악을 듣다보면, 한국의 획일적인 기독교 문화와 전통적으로 무속신앙 및 불교를 대변하는 국악 타악기의 조화는 다소 민감한 면이 있다. 아마도 오케스트라가 드러나는 부분은 서양음악을 경험하기 때문에 기독교적이라 할 것이고, 반면, 한국 전통악기의 사용은 무속음악적인 혹은 불교적이라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 사람이 어느 악기를 사용하는 것을 기반으로 이러한 생각을 가지는 것은 꽤나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고, 혹은, 경험에 의해 형성된 ‘전통’이라는 것의 의미가 자유로운 사고를 제한하는 장치가 되기도 한다.

두 개의 단순한 형식으로 구성된 본 작품의 시작에서, 오케스트라는 세밀하고 조심스러운 잔향과 함께 파편적인 선율의 조각들이 들어오고 나간다. 이러한 울림은 선율의 조각이 이끌어가는 방향성을 따라 음악적 긴장도를 완성해 가게 되는데, 각각의 ‘조각 선율’은 본인이 느끼기에 상당히 중세음악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듯하다. 또한, 이러한 선율은 작곡자 본인이 추구하는 선율 작법 양식과 조합되어 한국 전통 선율의 표현과도 어우러져 나타난다.

두 번째 섹션의 리듬적 진행은 마치 무속음악의 살풀이 혹은 인도의 ‘라가(raga)’와 같이 반복 속에서 지속적 템포 변화를 이끌어 극한의 영적 ‘무아지경’을 향한 움직임을 구성해 보았다. 한국음악도 그렇지만, 사실 동양의 음악들은 서양음악과는 다른 방식의 음고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이 섹션에서 서양음악적 선율 사용이 제외된 면도 있고, 대체적으로 동양음악에서 빠른 리듬이 주가 되어 사용 되는 동안에 있어서는 반복의 요소가 가장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는 이유에 의한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변화를 위해 사용한 또 한 가지의 접근법은, 반복되는 리듬 속에 구조적 밀도를 이끌어내기 위한 ‘극단적 음색의 추가’이고, 이는 영적 몰입 상태의 이미지를 그리는 데에 큰 도움이 되는 선택이었다고 생각된다.



## 조선희

-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
- \* Eastman School of Music 석사
- \* 현재 : 예원학교, 서울예고 출강

## 홍수(flood) for Violin and Chamber Orchestra

\* Vn. 이보연

Violin과 Chamber Orchestra를 위한 홍수는 이서형 작가의 회화 홍수로부터 구성되었다.

홍수를 보면 그 안에는 물과 사람의 넘쳐남이 있다.

물의 거친 넘쳐남에서는 물의 위력이 있어 불안감과 두려움 경외심에, 사람의 넘쳐남에서는 그 사람의 사연에 집중하게 되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이 여러 사람이 아니고 단 한 사람의 여러 상황의 모습이었고 그 사람은, 인생의 굴곡 안에서 상처받은 작가 자신이었다. 홍수같은 세상에 던져진 상처에 공감하며 작곡을 하게 되었다.

묘사음악이나 표제음악이 아니어서 특정의 요소가 어떤 인물이나 특정의 감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회화 '홍수'에서 배어져 나오는 불안정성, 역동성 쓸쓸함 그리고 수많은 인물이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느껴지는 외로움 등이 내포되어 있다.

Violin Concerto '홍수'는 APS의 제안으로 작곡하게 되었고 2022년 5월에 Violinist 이보연과 APS에 의해 초연되었다.



## 배동진

- \*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작곡과 졸업
- \* 독일 Frankfurt 음대, Freiburg 음대, 오스트리아 Graz 음대 졸업
- \* 일신작곡상, 독일 바이마르 국제작곡콩쿠르 1위, 한민족창작음악축전 대상 수상
- \* Frankfurt 모차르트 재단 후원 작곡가 (2011-2012)
- \* Kasseler Musiktage, Ensemble Linea, TIMF Ensemble, 서울시립교향악단, 국립국악원, 국립합창단, 인천시립합창단 등 위촉
- \* 화음챔버오케스트라(2016~17), 서울챔버오케스트라(2018~19) 전속작곡가 역임
- \* 현재 : 한국예술종합학교 작곡과 조교수

## “May I introduce Fauré?” for Orchestra

이 작품의 기본 콘셉트는 프랑스 작곡가 Gabriel Fauré의 가곡 Après un rêve(After a dream)에 대한 개인적인 상상에서 시작한다. 몇 해 전 이 곡을 소재로 삼아 피아노 4중주를 위한 실내악곡 <reflective>를 작곡했었는데, 그때의 흥미로웠던 경험을 관현악으로 발전시켜 보았다.

화가 이사라는 <꿈>이라는 주제를 인형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표현하는 작가이다. 어린 시절 가지고 놀았던 단순한 장난감을 작품의 모티브로 삼아 자신의 메시지(이 시대를 사는 현대인들의 외로움과 고독, 공허함과 허전함 등)를 담아낸다. 인형의 작은 특정 부분만을 근접 촬영 후 극도로 확대해 사각 프레임에 거대하게 채움으로써 대상이 일반적으로 가지는 의미를 넘어 새로운 시각을 갖는 경험을 유도한다. 개인적으로 흥미롭게 다가온 부분이 바로 이 작업 방식이다.

<꿈>이라는 주제로 작품 의뢰를 받았을 때, 우연이지만 작곡가 Gabriel Fauré의 가곡 Après un rêve를 계속 떠올리게 되었다. 학창 시절부터 지금까지도 좋아하는 이 노래에는 아주 인상적인 뉘앙스를 자아내는 독특한 표현들이 있다고 생각해 왔던 터라, (이사라의 작업에서처럼) 이 노래를 '인형'으로 삼아 '근접 촬영'해 몇몇 특정 부분들만을 내 작품의 재료로 선택했다. 피아노에서 한 번도 쉬지 않고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8분 음표 리듬의 화음 반복, 음역의 급격한 차이에서 느껴지는 음향의 공간적 대비(2~3마디, 34마디), 그리고 좁은 음역 내에서 순차진행으로 일관되게 오르내리는 성악 선율 등 이런 특징들을 내 작업의 재료로 가져왔다. 이를 시간적, 표현적으로 극도로 확대하거나 독특한 관현악적 음색 변화를 더해 낯설게 하는 등 재료 자체의 물성을 더욱 부각시킴으로써 추상화하고자 하였다. 더 이상 Fauré 원곡의 느낌을 가지는 단편들이 아니라, 단편들 자체가 하나의 새로운 '전체'가 되는, 새로운 청각적 경험을 가져보는게 이 작품의 의도이다.



## 이복남

-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B.A.) 및 동 대학원 졸업(M.A.)
- \* 미국 럿거스 대학교(Rutgers University) 박사학위 취득(Ph.D.)
- \* 4회에 걸친 작곡 발표회(2001, 2009, 2016 Seoul, 2009 U.S.A.) 개최
- \* 국내·외의 여러 음악제에서 작품 초청 연주
- \* (사)한국작곡가협회 이사장, 한국예술가곡연합회 부회장 역임
- \* 현재 : 명지대학교 교수, 동서악회 회장

## 관현악을 위한 “행궁(行宮)길, 그 향기에 취하다.” (한국초연)

이 작품은 화성행궁으로 향하는 정조대왕의 <화성능행도>에 영감을 받아 작곡된 것이다.

조선 후기 중흥기를 이끌었던 정조는 재위 기간 동안 어느 임금보다도 궁궐 밖 나들이인 행행(幸行)을 자주 했다고 전해진다. 사도세자의 무덤인 현릉원 방문을 비롯하여 정조는 총 66회의 궁궐 밖 행차를 했는데 특히 1795년 혜경궁 홍씨의 회갑과 사도세자의 구갑(舊甲)까지 경축하면서 자신의 재위 20년을 정리하는 뜻깊은 행사로 화성으로의 행차를 시작한다. 당시의 모습을 대표적인 화가였던 김홍도에게 제작하게 하여 『원행을묘정리의궤園幸乙卯整理儀軌』에 담았으며 이 그림을 참조하여 제작된 <화성능행도>에는 창덕궁을 출발하여, 화성행궁에서 열렸던 회갑잔치, 낙남헌에서 과거시험, 낙남헌에서 열렸던 노인들을 위한 양로연, 한양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그린 환어행렬도 등 당시 정조의 화성 행차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많은 인원과 물자가 동원된 정조의 화성 행차에는 일반 백성들이 국왕의 행렬을 구경하고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백성들과 함께하는 국왕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행궁(行宮)길, 그 향기에 취하다"는 화성행궁으로 향하는 아름답고 장엄한 행차 모습을 조선시대 임금의 거동이나 군대가 행군할 때 사용된 취타(吹打) 계열 행악(行樂) 음악들을 사용하여 서양의 관현악으로 재구성해 보았다. 전체적으로는 '대취타(大吹打)', '수제천(壽齊天)', '절화(折花 길군악)', '길타령', '금전악(金殿樂 별우조 타령)'이 단절 없이 연속으로 연주되는 5부 구조로 이루어진다. 국악에서의 태평소를 연상시키는 선율악기와 타악기 중심의 웅장한 대취타로 음악이 시작되는데 전통음악에서는 대취타 후 바로 일명 '길군악'이라고도 불리는 절화가 연주되나 이 곡에서는 임금의 행궁 입성을 알리는 수제천을 관악합주로 절화 전에 삽입하였다. '수제천'은 원래 멀리 떠나보낸 남편을 그리는 사랑의 노래 '정음사'에서 유래된 것이지만 이 작품에서는 떠나보낸 아버지, 사도세자를 그리는 아들의 효심 어린 마음을 생각하며 표현해보았다. 뒤이어 타령장단과 관계된 길타령과 금전악이 관현악 튜티(tutti)의 명쾌하고 흥겨운 선율로 음악을 고조시키며 끝맺는다. 악기 편성에 있어서는 타악기 중심의 소편성에서 점차 관악합주, 대편성의 관현악으로 음향과 템포 면에서 절정으로 향하는 구조를 보인다.

2013년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제9회 Clumusia Concert : 아시아의 관현의 현재"에서 위촉되어 세계초연되었으며 2017년 로마에서 개최된 New Music Festival "Pax Romana"에서 연주되었다. 한국에서의 연주는 APS에 의해 초연된다.

# 2023 아카데미 열정과 나눔 작곡가 선정 1차 공모

## "디딤돌 프로젝트"란?

'2023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창작산실 지속연주지원' 선정단체의 사업으로 **국내 신진 관현악 창작진 발굴 계획(인큐베이터 프로젝트)**이다. 기존 작품공모를 통한 1회성 연주회를 탈피해 단체가 작곡자의 작품의 구상에서부터 연주까지 그 과정을 함께하여 예술성 있는 작품의 완성을 돕고 향후 작곡가의 성장을 돕는 디딤돌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 매년 공모를 통해 선발된 작곡가들(1~2명)에게 단체 상주, 협동 작곡가와 멘토링을 통한 네트워킹으로 작품 구상에서 완성까지 발전의 기회 제공
- 단체 연습 시 작곡된 작품의 실연과정을 통한 작품의 완성도 향상
- 지역작곡가들의 작품을 발굴해 발표기회 제공
- 단발성 공연으로 끝내지 않고 단체의 정기, 특별 연주를 통한 재연 기회 제공
- 소셜 미디어 채널 개설 및 정기 업로드
- 기존 유튜브 채널을 활용하여 한국 관현악 창작자 소개 및 집중 재조명
- 보도자료, 블로그, 기타 등등에 홍보

연주일시	2024년 4월중
연주장소	미정 (차후공고)
연주	아카데미 열정과 나눔
연주예정작품	2관 편성의 관현악곡, 협주곡 (국악기 협연도 가능)
지원 대상	한국 국적의 만 40세 이하 작곡가 (2023년 7월 31일 기준)
선정 작곡가 지원 내용	작품료 100만원 지원 및 작품연주
작품 마감	2023년 7월 31일 24시 도착분에 한함
제출서류	<p>참가신청서 (자유 형식으로 작품해설 포함),  작품 2곡 (4중주 이상 편성의 실내악과 관현악 작품 / 발표된 작품도 가능)  총보 PDF파일, 음원 (실연주 음원, midi파일도 무방)</p> <p>- 참가신청서는 작곡가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e-mail 주소, 연주시간, 작곡년도 기재  - 공정한 심사를 위해 악보나 음원파일에 작곡가의 이름이나 Copyright를 기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p>
신분증사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가리고 제출
심사	<p>본 단체 협동작곡가 및 단원</p> <p>- 1차 : 서류 및 작품 심사  - 2차 : 대면 심사후 최종 선정</p>
제출처 및 문의처	apssymphonia@naver.com / Tel : 070-8800-3453